“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미션”

(창세기 6:5-10)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뉴장에 속한 모든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게 될 말세지 말의 때를 가르켜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마 24:37)”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자신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죄로 인해 심판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죄로 인해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창6:5-7).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거룩한 사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 즉 심판의 카운트 다운이 이미 시작이 되고 암박한 이 공의와 심판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장의 모든 가정들이 이 놀라운 거룩한 미션으로 모든 가정을 결국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하였으며’라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22절 말씀의 결론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자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1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룩한 사명을 통해 보여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의 순종함이 단순히 방주를 짓는 일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He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즉, 자기의 식구들을 구원키 위한 유일한 길임을 그는 영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흘리는 땀과 책임감이 다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 그리고 직장의 일과 건강 더욱더 나이가서는 노후 대책등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영적인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시대에는 뒤떨어져 보이는 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먼저 순종하고 가정에서 모범을 보일 때 모든 식구은 결국 심판의 공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구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안 보이는 자리에서 아내의 지혜로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남편인 노아와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함께 거룩한 미션인 방주를 짓는 일과 회목의 끈을 묶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당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여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결혼하는 잘못된 세계관과 문화 속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대의 의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도 며느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리브가(뜻, 묶다)가 아곱과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묶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노아의 아내도 늘 마음이 산에 가 있는 아버지와 세상으로 뛰쳐나가기를 원할 수도 있는 아들들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가정들 통해 이루어지도록 신앙으로 묶는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점심, 저녁을 준비해서 산으로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했던 수고와 희생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무명의 여인이라 할 짜라도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 수고하는 그 믿음의 땀방울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 시대에 노아와 그의 아내의 신앙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 모든 가정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뉴장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표어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사랑의 5대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 치 부		청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티모시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5년 5월 25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이재환 목사

글로리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18번 “시편(Psalms) 31편”	기도	이재원 집사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공동체 소식	영상
찬송 Hymn	새508장(통270)“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I am a Stranger Here’	성경봉독	히브리서 12:25-29
기도 Prayer	방용복 장로 (Elder Yong Bok Bang)	*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성경봉독 Scripture	창세기(Genesis) 9:8-17	설교	**“없어지지 않는 것”** 김성준 목사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나의생명드리니”(1,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예수이름 높이세”
설교 Preaching	**“케쉐트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소서”** ‘May We Live Again by the Grace of Keshet’ 김학진 목사	축도	김성준 목사
*찬송 Hymn	새510장(통276)“하나님의 진리 등대”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